

---

---

## 4·19 민주항쟁시기 부산지역의 통일운동

김 선 미 / 부산대학교 사학과

---

---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통일운동의 전개와 부산지역의 통일운동       |
| II. 혁신정계의 대두와 통일논의의 확산                | 1. 민지통 중앙 및 지방협의회 결성           |
| III. 부산 민주민족 진영의 분포와<br>4·19 민주항쟁의 전개 | 2. 부산지역의 통일운동과<br>민지통 경남협의회 결성 |
| 1. 1950년대 후반 부산의 민주민족세력               | V. 맺음말                         |
| 2. 부산지역 4·19 민주항쟁의 전개                 |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

### I. 머 리 말

4·19 민주항쟁은 반민족적인 정치 현실과 비민주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의 표출이었다. 그간 4·19 민주항쟁에 대한 연구는 학생층을 중심으로 진행된 3, 4월의 민중 저항에서 이승만 정권의 퇴진 후에 전개된 일련의 민주화운동과 자주화투쟁으로 점차 인식의 범위를 넓혀 왔다. 그 결과 4·19 민주항쟁은 1960년 3, 4월의 민중 저항에서 이듬해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종말을 고하기까지,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권 아래서 진행된 민주화와 자주화를 지향하는 각 방면의 실천 활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sup>1)</sup>

---

1) 박찬호, 1992,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

이 과정에서 부산은 대구, 마산과 함께 항쟁이 가장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다. 부산에서도 학생을 중심으로 한 반독재투쟁에 이어, 그 민주적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부문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조되는 자주화운동의 한 축을 형성한 곳도 부산 지역이었는데,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중양협의회)의 결성으로 귀결된 통일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민자통중양협의회는 4·19 민주항쟁 시기 최대의 통일운동 단체로서, 그 결성을 추동한 것이 민족건양회와 민주민족청년동맹 등 부산지역의 민족자주세력이었던 것이다.

4·19 민주항쟁 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후 평화적 통일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자주적 통일운동의 격렬한 전개는 4·19 민주항쟁 최대의 특징이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민자통중양협의회라는 것이 인식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통일운동세력의 활동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정창현, 김지형은 민자통중양협의회 결성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그 결성을 제기한 것이 민족건양회와 민주민족청년동맹이었으며, 이후 민자통중양협의회의 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이어서 김보영, 홍석률은 이들이 진보 진영의 통일론인 남북협상통일론을 주창함으로써 4·19민주항쟁 시기의 통일운동 국면을 주도하였음을 밝혔다.<sup>2)</sup> 이로써 민자통중양

---

구반 『한국현대사』 2, 풀빛 :안병욱, 1996, 「4월민중항쟁」,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한국사연구입문』 3, 풀빛 : 홍석률, 1996, 「혁신정당과 민족민주운동」, 한국역사연구회 엮음, 앞의 책.

2) 정창현, 1992, 「4월민중항쟁 직후 혁신정당운동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앞의 책 : 김지형, 1996, 「4·19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조직화 과정」, 『역사와 현실』 21 : 김지형, 2000, 「4월민중항쟁 직후 민족자주통일협의회 의 노선과 활동」,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4·19와 남북관계』,

협의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부산지역 통일운동세력의 역할과 위상이 분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부산지역의 통일운동세력이 서울에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이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기반에 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19 민주항쟁 시기의 통일운동에서 주요한 축을 형성한 부산지역의 민주적 자주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대구 경북과 더불어 경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4·19 민주항쟁의 전체상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sup>3)</sup>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4·19 민주항쟁 시기 부산의 민주민족세력이 가진 지역적 토대를 규명하려 한다. 또한 4·19 민주항쟁의 직접적 前史를 형성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 말기의 부산의 진보 진영의 존재 양태와 활동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4·19 민주항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있었음을 설명하려 한다. 나아가 대구 지역 진보 진영과의 연계성을 밝혀, 이 시기 진보 진영의 최대 거점이었던 경상남북도의 민주민

---

민연 : 김보영, 2000, 「4월민주항쟁 시기의 남북협상론」,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주항쟁연구반 앞의 책 : 홍석필, 2001,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 1953~1961』,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외에 관련 연구로는 김경권, 1985,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민족자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 김광식, 1988,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 봄 : 유재일, 1988, 「4·19시기 혁신정당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서중석, 1991, 「4월 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 가을 : 김선미, 2007, 「4·19를 전후한 시기 통일운동의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회 현장민주화운동사정리사업 등이 있다.

- 3) 부산의 통일운동세력이나 그 지역적 기반에 대한 연구는 박철규, 2000, 「4월민주항쟁의 전개과정-부산」, 최장집 외 『한국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한가람 : 김선미, 2000 「부산의 4월민주항쟁과 주도세력」, 최장집 외, 앞의 책, 참고.

족역량을 이해하는 데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4·19 민주항쟁의 전체상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이 연구의 최종적 목표로 한다.

## II. 혁신정계의 대두와 통일논의의 확산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를 통하여 이승만 정권은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북진통일론 이외의 통일론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일운동은 사실상 관제단체가 주도하는 관제 통일운동으로서만 존재했다. 4·19 민주항쟁으로 인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은 이러한 정국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왔다. 북진통일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을 뿐 아니라<sup>4)</sup> 대중적 저항으로 초래된 정치 지형의 변동은 그 자체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확대하여 통일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 이 열린 공간을 통해 통일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던 것이다.

한편으로 이 무렵에는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정세 변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핵 개발에 이른 미·소 간의 군비 경쟁은 역설적으로 타협을 통한 평화공존의 기운을 높였고, 이에 미·소 간의 경쟁은 군사적 대치에서 정치·경제적 경쟁을 중심으로 이동할 조짐을 보였다. 또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탈냉전 중립주의가 주창되면서,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유엔에 가입한 1960년대 초에 유엔의 판도는 크게 달라졌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그간의 냉전적 사고방

---

4)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론의 포기 선언에 대한 허경 과도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김학준, 1982,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의」, 양호민 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311~312쪽 참고.

식에 일정한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단히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이런 국내외 상황을 배경으로 통일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7·29 총선에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도 정치권 바깥에 머무르고 있던 재야 정치인과 진보적 지식인 그리고 진보당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출마하여 선거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이들은 그 내부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혁신계라 불렸는데,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기존 사회체제의 궁극적 변화를 추구하고, 극단적인 반공 이념과는 다른 차원에서 남북의 실체 인정과 교류·협상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이 대두한 정치세력은 통일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보수 정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총선 국면을 주도하고자 하였다.<sup>5)</sup> 하지만 혁신정당의 통일론은 4·19 민주항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내놓은 ‘유엔 감시 하의 남북 총선거’라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통일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자유당 정권기와는 달라진 점이었고, 또한 남북교류와 같은 주장은 이후 민주당과 신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혁신정당과 진보 진영에 통일론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수용되었다.

해외의 망명 지식인들도 통일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가운데 金龍中,<sup>6)</sup> 金三奎<sup>7)</sup> 등

5) 혁신정당의 통일론에 대해서는 김광식, 정창현, 앞의 논문; 노중선, 1989,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50~72쪽 참고.

6) 미국의 김용중은 재미국민회 계열의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8·15 직후에는 여운형, 김규식 등과 연계된 활동을 하였다. 김용중은 1943년 한국사정사(THE

은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여 통일논의를 고양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이 주장한 중립화통일론은 주변 강대국 간의 합의로 한반도를 영세중립화하여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통일논의가 고조되던 초기에 중립화통일론은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60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다. 서울일일신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등이 좌담회, 심포지엄,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생, 교수,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통일의 방법과 주체를 두고 다양한 관점의 통일론이 발표되었다.<sup>8)</sup>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는 단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통일논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민중 저항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는 북한의 집권층에 큰 충격을 주게 되어, 남한의 혁명 역량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북한은 기존의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남한혁명론을 남한 군중이 주체가 되는 지역혁명론으로 통일전략을 수정하기

---

KOREA AFFAIRS INSTITUTE)를 창립하고, 영자신문 『한국의 소리』(THE VOICE OF KOREA)를 발행하였는데, 8·15 직후부터 분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주장을 펼쳤다. 김용중은 마·소 양군의 철퇴,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의 한국 중립화협정 체결, 유엔을 통한 중립국 감시하의 총선이라는 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김용중에 대해서는 정병준, 「김용중의 중립화 통일운동과 관련문서 현황」, 『역사비평』 6, 1995, 375쪽; 홍석률, 2001, 앞의 책, 242~245쪽 참고.

7) 김삼규는 일제시기에 카프계열 문인들이 만든 무산자사의 동인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8·15 후 동아일보 주필을 역임하였다. 한국전쟁 중에 일본으로 망명한 뒤 김삼규 휴전 무렵부터 중립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김삼규에 대해서는 言論人金三奎 刊行委員會, 1989, 『言論人 金三奎』, 朝日新聞社東京本社出版サービス: 홍석률, 2001, 앞의 책, 245쪽 참고.

8) 노중선, 1985, 『민족과 통일 I』, 사계절, 373~378, 381~383쪽.

에 이르렀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통일운동이나 논쟁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였다. 그것은 미군 철수,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대표로 구성된 임시행정기구의 수립,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연석회의 소집, 남북연합경제위원회 구성, 남북 간 왕래, 외국의 간섭 없는 총선거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대남 통일공세로 나타났다.<sup>9)</sup> 이 무렵 북한의 통일공세가 갖는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남북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강조였는데, 이를 통해 남한의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4월 21일 조선노동당 발표한 조선노동당의 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남조선에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심각한 정치위기와 경제파국을 수습할 수 없다. 북반부의

풍부한 자원과 강력한 경제토대에 의거하지 않고는 여지없이 파산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할

수 없으며, 극도에 달한 남조선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개선할 수 없다.<sup>10)</sup>

북한은 전후 경제복구 3개년계획(1954~1956년)과 사회주의 개조를 위한 제1차 5개년계획(1957~1959년) 이후 36.6%에 이르는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면서 남한과의 경제 격차를 벌여 나갔는데, 이러한 경제부분의 우위와 자신감에서 북한은 남북교류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를 제안하였다.<sup>11)</sup>

9) 이상 북한의 통일전략에 대해서는 정창현, 「4월민중항쟁 전후 북한의 통일노선과 통일정책」,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앞의 책: 한모니까, 「4월민중항쟁 시기 북한의 남한정세 분석과 통일정책의 변화」, 한국역사연구회 4월민중항쟁연구반, 앞의 책 참고.

10) 『노동신문』1960년 4월 22일.

11) 1960년 당시 농축산업을 제외한 전력, 석탄, 비료, 어획고 등 대부분의 산업생산 분야에서 남한의 생산량은 북한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였고, 1960년대 전반기까지

이상과 같은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힘입어 4·19 민주항쟁 시기에는 통일논의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던 것이다.

### Ⅲ. 부산의 민주민족 진영의 분포와 4·19 민주항쟁의 전개

#### 1. 1950년대 후반 부산의 민주민족세력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조성된 극도의 반공주의에 기대어, 억압적인 정권이 권력을 정당화하던 시기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민족자주의 열망과 함께 동면 상태에 접어드는 한편으로, 反민족적인 권력의 부도덕성이 축적되면서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1950년대 후반 부산에는 민주적, 민족적 정치 운동의 인맥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국내외의 민족해방운동과 중국 등지를 무대로 한 항일무장투쟁의 전통, 이를 계승한 8·15 이후의 국가건설운동의 인맥, 1950년대 중반에 있었던 진보당 계열의 기반 등이 광범하게 분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부산지역의 민주민족 인맥은 8·15 이후 이 지역이 경과한 독특한 정치 상황의 산물이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산 출신이나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아니었지만, 8·15 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부산이 대도시여서 활동하기에 적합했다는 점, 극한적 좌우 대립 국면이 만들어낸 백색 테러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상

---

1인당 GNP는 북한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상은 한국은행, 1970, 『경제통계연보』, 198쪽 : 조선중앙통신사, 1961, 『조선중앙년감』, 333쪽 : 민족통일연구원, 1992,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236쪽 참고.



황 등이 작용했다.<sup>12)</sup> 또한 한국전쟁은 많은 사람들을 부산으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휴전협정이 맺어진 뒤에도 부산에 머물렀다. 전쟁 기간에 부산은 임시수도로써 서울과 더불어 정치의 일선이었고, 수도를 서울로 옮긴 후에도 상당수의 진보적 인사들이 머물러 부산의 정치 지형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1950년대 후반 부산에서는 각종 조직 활동이 공개 또는 비공개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탓에 비교적 포괄 범위가 넓었던 것은 민족문화협회였다. 민족문화협회는 1954년 무렵 부산대학교 교수 이종률을 중심으로 부산대, 동아대 학생들로 결성되었다.<sup>13)</sup> 이종률은 일제강점기에 경성청년회와 신간회 동경지회에서 활동하고 8·15 직후 백남운 등과 함께 조선학술원을 창립한 인물로, 일생 동안 반제국주의 자주화투쟁에 헌신해온 민족혁명가였다.<sup>14)</sup>

12) 조선독립동맹의 맹원으로 활동하다 귀국한 劉赫에 의하면, 자신을 포함하여 이런 인물이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혁은 경남 양산 출신으로, 8·15 후 부산에 정착하여 남조선신민당, 경남농민연맹, 민족자주통일경남협의회에서 활동하였다. 유혁 구술, 김선미 면접, 2000년 6월 19일 부산연합 사무실.

13) 부산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1997, 『부산대학 50년사』, 207쪽.

14) 이종률은 1925년 경성청년회(북풍파) 창립에 참여, 최초의 사회과학 학생단체 공학회를 결성했다. 6·10만세운동 이후 일본 와세다대학에 진학, 1927년 신간회 동경지회 설립을 주도했다. 귀국 후 1928년 학생맹휴옹호전국동맹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1931년 사회실정조사소를 설립, 기관지 『이러타』를 발간했다. 1933년 형평청년전위동맹사건, 경성대 미야케[三宅鹿之助]교수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옥고를 치르고, 출감 후 일제 말까지 보호관찰령의 감시를 받았다. 8·15 후 백남운과 함께 조선학술원 창립에 참여하고 이극로, 조봉암 등과 민주주의독립전선을 결성하여 단독정부반대투쟁을 했다. 이종률에 대해서는 전명혁, 2005, 「산수 이종률의 민족해방운동과 민족혁명운동」, 『사림』 24: 김승, 2006, 「일제강점기 이종률의 민족혁명운동」, 『지역과 역사』 18: 김선미, 2006 「이종률의 혁명운동과 민족혁명론의 형성」, 『지역과 역사』 18 참고. 민족혁명

민족문화협회가 처음부터 대중조직의 위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결성 초기 민족문화협회의 성격은 소규모 비밀결사에 가까운 것이었다. 결성식에 참여한 구성원은 10명도 채 못 되는 수였다. 이들은 이종률의 영향력 아래 있던 학생들이었고, 결성 장소도 참여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의 자취방이었던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이후 민족문화협회는 차차 합법 공간을 확보하여 대중운동단체로 성격을 변모시켜 갔다. 이와 함께 조직원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조직의 외연도 확대되어, 부산 경남 일원의 양심적 지식인들의 참여도 늘어났다.<sup>16)</sup>

민족문화협회의 주요 활동은 강연회였는데, 강연회의 주제는 주로 항일 민족운동과 反외세 역사학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의 정치 현실에서 탄압을 피하기 위해 유희적인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민족문화협회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비자주적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반외세 민족자주를 지향한다는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였다. 민족자주의식을 대중적으로 고취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양심적 지식인층의 결속을 다지고자 한 민족문화협회 활동은 195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sup>17)</sup> 이러한 활동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띤 것은 아니

---

문에 대해서는 김선미, 2007, 「이종률의 한국사회 인식과 민족혁명론」, 『역사와 세계』32; 김선미, 2008, 「이종률의 민족운동과 정치사상」,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고.

15) 이상은 이종률의 제자로서, 민족문화협회의 결성에 참여한 裵多枝(裵峻洪)의 증언이다. 1960년 당시 배다지는 국제신보사 기자로서, 4·19민주항쟁으로 민주민족청년동맹이 결성되자 경남도맹의 간사장을 지냈다. 뒤에 민주개혁국민연합 의장으로 활동했다. 배다지 구술, 김선미 면접, 2000년 3월 21일 부산민주연합 사무실.

16) 이 무렵 민족문화협회에 참여한 지식인으로는 부산대 교수이자 문학가인 요산 김정환, 부산대 교수 박상우, 수산대 교수이자 아동문학가인 향과 이주홍 등이 대표적이다.

었지만, 그 결과 민족문화협회 구성원은 대부분 4·19 민주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주민족청년동맹의 결성과 민족자주통일중앙 및 지방협의회 구성에 참가했던 것이다.

한편으로 부산에는 진보당 부위원장을 지낸 박기출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당 인맥이 잔존하고 있었다. 이들은 창신학회라는 공개적인 독서모임과 성민학회라는 비밀서클의 양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醒民學會는 박기출을 이사장으로 결성되었는데, 부산에서 먼저 조직되었고 이후 서울의 조직 작업이 진행되었다. 중심 인물인 김배영, 김한덕, 김재봉 등 부산 출신의 청년들은 일찍이 진보당에 참여한 이들이었다.<sup>17)</sup>

성민학회와 달리 창신학회는 공개적인 독서모임 형태를 취하였다. 창신학회는 매주 한 번씩 대중적인 교양강좌를 운영하였는데, 강좌에서는 반동체제 등 주로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를 통해 진보적 정치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 것으로, 일종의 계몽운동적 성격이 강했다. 성민학회를 후견하고 있던 박기출이 역시 창신학회의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성민학회 구성원들이 창신학회에 소속되어 있기는 했으나 회장 등 간부직에 나서지는 않았던 것이다. 부회장인 이종석이 진보당의 비밀당원 출신이기는 했으나,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

17) 민족문화협회의 주요 구성원은 김종수, 허수복, 김상찬, 배다지, 하상연, 조현중, 손의현, 손춘근, 이규섭, 김진영, 임형구, 최원규, 이춘섭, 이길우, 김홍주, 나성길 등이었다. 강연회 주제는 ‘추사, 슈만, 하이네 백년제의 밤’, ‘민족문화의 밤’, ‘3·1독립선언문과 2·8독립선언문의 비교 연구’ 등이었다. 민족문화협회에 대한 것은 부산대학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7쪽; 배다지 앞의 구술(2000); 김상찬 구술, 김선미 면접, 2000년 3월 15일 부산민주연합 사무실; 이종석 구술, 김선미 면접, 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사료 수집사업 참고.

18) 『영남일보』 1960년 3월 6일 : 이종석, 앞의 구술.

원들은 진보당 또는 정치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sup>19)</sup> 창신학회는 가두에 포스터를 붙여 교양 강좌를 홍보할 만큼 학회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진행했을 뿐 아니라 회원이 아닐지라도 모임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허용되었을 정도로 외부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하였다. 따라서 창신학회는 성민학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적 외연을 넓게 형성하고 있었다.

성민학회와 창신학회로 존재하고 있던 옛 진보당 조직은 4·19 민주항쟁의 공간에서 혁신정당과 교원노조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성민학회의 진보적 청년들은 사회당준비위원회의 청년조직을 형성하였으며, 통일민주청년연맹준비위원회의 중심인물로 활약하게 되며, 창신학회의 이종석은 경남교원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 부산에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비공개 독서서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폭압적인 정치권력은 진보적 서적에 금서라는 굴레를 씌워 대중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단지 서적을 소지하거나 읽는 것만으로도 범법 행위로 탄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인 학문의 습득을 위해서는 특별한 모임의 구성원이 되어야 했다. 이런 정치 환경이 비밀 독서서클을 만들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룹으로 김규철 그룹, 성기호 그룹 등이 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은 진보적 학문의 습득과 공유였고,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차세대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현직 교사들로서, 민족문화협회에 포괄된 양심적 지식인 그룹이나 성민학회를 중심으

---

19) 창신학회 회장을 지낸 고정권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뒤에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고 한다. 창신학회에 대한 설명은 부회장을 지낸 이종석, 앞의 구술 참고.

로 하는 혁신계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은 4·19 민주항쟁 기간에 경남교원노동조합연합회와 민주민족청년동맹 등에 속하여 활동하게 된다.<sup>20)</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전쟁을 거쳐 보수 일색으로 축소된 협소한 정치 지형 속에서도 1950년대 후반, 1960년 초의 부산에는 다양한 민주적 자주적 세력이 존재하였다. 그 가운데는 진보적 정치 세력과 직간접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장래를 준비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당시의 정치 상황이 허용하는 한정된 공간 속에서 가능한 대중 활동을 전개한 민족문화협회와 같은 조직도 있었다. 이외에도 부산에는 조직화되지 않은 다양한 진보적 정치인과 양심적 지식인들이 산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산의 민주 지형은 이후 부산의 4·19민주항쟁이 전개되는 토양을 이루었던 것인데, 이들은 4·19 민주항쟁의 와중에서 합류하게 되는 것이다.

## 2. 부산지역 4·19 민주항쟁의 전개 양상

부산에서도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에는 고등학생의 시위가 선두를 형성했다. 부산지역의 학생들은 3월 초부터 공명선거와 학원의 자유를 호소하는 빠라를 살포하고 집회를 시도하여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였다.<sup>21)</sup> 3월 12일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의 가두시위

20) 김규철 그룹의 주요 구성원은 김규철, 이용대, 권치관, 박우상, 이상배, 박창중 등이었다. 이들은 모임의 이름을 정하는 것을 기피했는데, 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결속력과 소속감에서 볼 때 상호간 조직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성기호 그룹은 민족사학보존회라 불렀는데, 성기호, 이근영, 도강호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상은 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 의장을 지낸 김규철 구술(김선미 면접, 2000년 8월 18일 서울 롯데호텔 2층 커피숍)에 의한 것이다.

를 시작으로 부산도 3, 4월 학생 시위의 대장정에 돌입했는데, 수십 여에 이르는 부산의 고등학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계획하거나 참여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중학교도 시위에 가담하였다. 서구에서 동래구에 이르는 시내 전역을 현장으로 시작된 학생 시위는 24일 부산고교와 25일 동성고교의 시위를 거쳐 4월 18일 동래고교, 19일 경남공교의 시위로 정점에 이르렀던 것이다.<sup>21)</sup>

시위 학생들은 개별 학교의 단위를 넘어서 학교 간 연대를 실현하였는데, 가두에서 연합시위를 감행하기도 하고,<sup>22)</sup> 시위에 사용할 선언문을 공동으로 작성하는<sup>24)</sup>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를 실행하였다.<sup>25)</sup> 이 과정에서 부산·마산 지역 고등학교의 연합체로 경남학생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경남학생위원회에는 마산과 부산의 고등학교 가운데 2/3 가량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는 해당 학교의 학생회 또는 학도호국단 간부들이었다.<sup>26)</sup>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경남학생위원회를 주도한 것은 항도고교의 李亨浩였다.<sup>27)</sup>

21) 『국제신보』 1960년 3월 8일, 9일, 11일 : 『부산일보』 1960년 3월 8일.

22) 『부산일보』 1960년 3월 24일, 25일, 4월 18일, 19일, 20일, 24일.

23) 3월 14일 서면 범천동 구름다리에서는 동래고, 부산상고, 영남상고, 항도고, 북부산고, 데레사여고가 합동 시위를 벌이고 뼈라를 살포하였다. 24일 부산고교 시위의 참가 학생이 “딴 학교에서 약속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투덜”거린 것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계획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국제신보』 1960년 3월 15일, 24일.

24) 3월 24일 부산고교 시위에서 사용된 선언문은 부산고교를 포함하여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공동 제작한 것이다. 이형호 구술, 김선미 면접, 2000년 5월 28일 참고.

25) 연합시위는 3월 12일, 14일, 26일 등 여러 차례 확인된다. 『부산일보』 1960년 3월 15일, 26일 : 『국제신보』 1960년 3월 13일, 15일, 26일.

26) 이형호에 따르면 부산과 마산의 학생운동은 항상 교감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또한 애초에는 대구의 학생들과도 교감을 가졌다고 한다. 부산지역 고교생 시위의 양상에 대해서는 이형호 구술, 김선미 면접, 200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사료 수집사업 참고.

경남학생위원회는 이듬해에 경남학생총연합회로 확대 개편되었다. 경남학생총연합회는 경남 도내의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괄한 학생단체로서 1960년 3월 1일 동아대학교 강당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sup>28)</sup> 경남학생총연합회는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로 해산되기까지 경남의 학생운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무렵 부산의 대학가에는 수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의 학생들을 포괄한 학생 비밀결사로서,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약칭 후연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후연회는 1960년 이전에는 독서모임에 치중하다가, 3월 25일의 졸업식장에서 부정선거규탄대회를 계획하면서 실천 활동에 돌입하였다.<sup>29)</sup> 후연회는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종률의 후진성지역론에 영향을 받은 조직으로, 중심인물인 손병선, 손의현을 비롯하여 부산대 후연회의 중심은 이종률이 재직하고 있던 부산대 정치학과 학생들이었다. 후연회는 오랫동안 내적 역량을 축적하는 한편 지역 내 진보적 지식인들의 지원을 받아왔던 탓에 이 무렵에는 대학 내의 우수한 인사들을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후연회는 10월 12일 부산대 정치학과 주최로 '전국 대학 모의국회'를 개최하고 12월 17일 부산대에서 '후진성극복 시국강

27) 최석환에 따르면 이형호는 부산시내 거의 모든 고교의 학도호국단과 연계를 갖고 있었다. 당시 이형호는 매우 헌신적이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대중연설도 곧잘 했고, 고등학생으로서는 이론적 무장의 수준도 높았다고 한다. 최석환 구술, 김선미 면접, 2000년 3월 31일. 이외에 배다지 구술, 김선미 면접, 200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관련인사 구술사료 수집사업 참고.

28) 『국제신보』 1961년 2월 25일.

29) 후연회의 연원은 1950년대 말 경으로, 구성원 가운데는 부산 이외 다른 지역의 학생, 또는 학생 이외의 일반인도 있었다. 중심인물은 수산대의 나택균, 동아대의 도강호, 부산대의 손병선 등이었다. 후연회 관련 서술은 부산대 법대 출신으로 후연회 부회장을 지낸 최석환, 앞의 구술 :배다지, 앞의 구술(2000) :이형호 앞의 구술(2000) 참고.

연회'를 개최하는 등 시국문제를 주제로 하는 각종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여 학생 대중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활동을 전개했다.<sup>30)</sup> 한편 후연회는 경남학생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지도성을 발휘하거나 연대를 형성하고,<sup>31)</sup> 혁신계 정치인 등 진보적 지식인 등과 연계하면서 4·19 민주항쟁의 국면에서 일약 부산지역 대학가의 구심으로 떠올랐다.<sup>32)</sup>

부산지역 학원가의 또 하나의 구심은 대학교수단의 형성이었다. 이승만 퇴진 직후의 정치적 쟁점은 국회 해산과 헌법 개정이었는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이 대학 교수들이었던 것이다. 5월 1일 부산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내 각 대학의 교수 수백 명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 모여 교수단을 조직하였다. 이날 교수들은 개헌 전에 국회를 해산할 것, 학원민주화를 위해 대한교육회와 학도호국단을 해체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플래카드를 들고 시내를 행진하였다.<sup>33)</sup> 이에 교수단의 선언을 지지하는 6천여 학생들의 시위가 부산대, 동아대, 경남상고, 경남여상, 부산여상, 경남중학교, 부산중학교, 부산고교, 개성중학 등에서 이어졌다. 또한 이날의 시위에는 교수단 선언을 지지하는 수만 명의 시민이 교수단의 시가행진을 뒤따랐던 것이

30) 전국 십여 개 학교가 참여한 제4회 전국대학 모의국회의 심의법안은 '경찰중립화법안'과 '부정축재처리법안'이었다(『국제신보』 1960년 10월 12일, 12월 15일). 부산대 정치학과는 이종률이 재직한 곳으로, 정치학과 학생 가운데 절반 가량이 후연회 관련자였다.

31) 부산 최초로 가두시위를 벌였던 해동고교는 후연회 손병선의 출신교로, 손병선이 지도성을 발휘한 곳이었다. 또한 4월 18일 동래고 시위의 목표 지점 가운데 하나가 부산대학이었는데, 이는 부산대 학생들과 합류하기 위한 것이었다. 후연회와 경남학생위원회를 연결한 것은 이형호였다. 최석환 앞의 구술 참고.

32) 혁신정치인으로는 박기출, 김용겸, 임갑수 등이, 이외에 이병주, 변노섭 등이 후연회와 연계하고 있었다.

33) 『국제신보』 1960년 5월 1일, 2일, 3일, 4일.



다.<sup>34)</sup>

교수단의 성명을 신호탄으로, 부산 시내 전역에서 전개된 국회 해산 요구가 정계에 던진 충격은 자못 큰 것이었다. 이에 부산계 업무사무소는 반항하는 시위대에는 발포할 것을 경고하였고, 보수 정치인은 조총련계와의 관련설을 언급하는 상투적 수법까지 동원하였으며, 급기야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부산으로 파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35)</sup> 하지만 지역 여론이 교수단의 성명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탄압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6월 4일 부산대학에서는 개헌안학술토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후에도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나갔다.<sup>36)</sup>

한편 민중저항으로 이승만이 퇴진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자 혁신 정치인을 비롯한 재야 지식인들의 결집이 가시화되었다. 4·19 민주항쟁 당시 부산에는 명망 있는 혁신계 정치 지도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음은 기술한 바와 같다. 3, 4월의 학생시위로 이승만정권이 붕괴하는 현실이 도래하자 이들은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급속히 조직화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승만이 쫓겨난 지 불과 3일 만인 4월 29일에 한독당, 민족자주연맹, 사회당, 근민당, 신생당, 민독당, 진보당에 참여했던 인사 70여 명은 한 데 모여 ‘한국혁신세력집결축진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서 한독당 중앙위원으로 1948년 남북협상에 참가했던 尹于鉉을 조직위원에, 민족자주연맹과 진보당 및 사회당(당수 조소앙) 경남도당에서 활동한 金哲을 준비위원으로 피선하는 등 각종 부서를 확정 짓고,<sup>37)</sup> “전국 혁신세력의 동지는 총집결 대동단

34) 『영남일보』 1960년 5월 3일, 4일.

35) 『국제신보』 1960년 5월 4일, 7일, 8일.

36) 『국제신보』 1960년 6월 4일.

37)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한국혁명재판사』3권, 793~794쪽.

결하라”는 등의 격문과 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조국통일에 대한 활발한 국민여론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sup>38)</sup>

이후 부산 경남의 혁신계 역시 사회대중당 경남도당결성준비 위원회를 조직하여 7월 29일 총선에 임하였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총선에서 참패하였다. 총선 후 혁신계는 이념적 분화 현상을 보이면서 사회당,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기타 정당으로 재편되었다. 윤우현 김철 등에 의해 사회대중당 경남도당이 결성되었으며, 金用謙 宋世東 金在奉 申泳甲이 등이 사회당 경남도당을, 朴汶喆 裴一誠 林甲守가 통일사회당 경남도당의 결성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sup>39)</sup> 이들은 후연회를 통하여 학원가의 민주화 투쟁을 일정하게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민주민족세력과 연대하여 민주항쟁을 수행하였다.

학생층, 혁신정계와 더불어 이 시기 부산의 특징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은 청년계의 움직임이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한지 두 달이 못 되는 6월 12일 부산에서는 새로운 청년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민족청년동맹(약칭 민민청)이 결성되었다.<sup>40)</sup> 이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서 청년층을 조직화한 것이었다.

민민청은 민족문화협회를 주도한 이종률에 의해 주창되어 그 문하인 李寧錫, 河相演, 金相贊, 裴多枝, 趙鉉鍾, 孫毅鉉 등을<sup>41)</sup>

38) 국제신보 1960년 5월 1일.

39) 김용겸은 민족자주연맹, 사회당(조소앙)에서 활동한 바 있고, 현직 변호사였다. 사회당경남도당결성준비위원회 위원장, 민자통경남협의회 의장을 지냈다. 임갑수는 건국동맹, 민족자주연맹, 진보당에서, 박문철과 배일성은 진보당에서 활동했다(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1962, 『한국혁명재판사』 3권, 658쪽, 890쪽).

40) 『국제신보』 1960년 6월 13일.

41) 이영석은 경희대 한의학과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종률의 부산대 정치학과 제자이다. 하상연은 부산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고, 김상찬, 배다지, 조현중은

중심으로 결성되었다.<sup>42)</sup> 창립대회에서 민민청은 민족혁명론과 반동체제 방향에 입각하여 자주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청년운동의 전개를 선언했다. 한편 민민청은 청년단체의 정치도구화를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는 민족청년단 등 이승만 정권 아래서 정치집단의 폭력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각종 청년단체들과의 차별화를 선언한 것이었다.<sup>43)</sup> 민주민족청년동맹에는 현직 교사와 언론사 기자를 비롯하여 지역 청년계의 우수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sup>44)</sup> 이는 기성 정치세력의 별동대로서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기존의 청년단체와는 사뭇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기존의 보수 정파와 무관한 진보적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단체의 출현은 지역 사회의 시선을 아연 집중시키면서 청년계에 참신한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sup>45)</sup>

창립대회를 마친 후 민민청은 전국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작

『국제신보』 기자였다. 이 날의 회합에 대해서는 배다지, 앞의 구술(2002) 참고. 이영석은 1964년 1차 인민혁명당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렀다(김세원 증언, 한상구 구성, 「4월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역사비평』 겨울, 1991, 416쪽).

42) 김지형, 앞의 논문, 141·160쪽과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부산민주운동사』, 169쪽에는 ‘민주민족청년동지회’를 민주민족청년동맹의 전신이라 서술하였지만, 민주민족청년동지회는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김지형 등의 서술은 김상찬의 미간행 원고에 의거한 것인데, 김상찬 이외의 인물들은 스스로를 민주민족청년동지회의 조직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다지, 앞의 구술(2002) : 조현중 구술, 김선미 면접, 200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업.

43) 민주민족청년동맹의 강령과 결의문 등은 이일구(이종률), 1960, 『현순간정치문제소사전』, 국제신보사, 148~149쪽 참고. 민주민족청년동맹의 결성과 기타 상세한 내용은 김선미, 앞의 논문(2000) 참고.

44)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207쪽 : 김민한 구술, 김선미 면접, 2000년 4월 26일 : 김대상 구술, 김선미 면접, 2005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사업.

45) 조현중, 앞의 구술(2002).

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중앙맹부를 서울로 옮기고 이전의 중앙맹부를 경남도맹으로 개편하는 한편 대구를 중심으로 경북도맹과 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도맹의 조직을 추진했다.

서울에 중앙맹부를 꾸리는 일에는 부산 출신 岩漿그룹의 합류가 중요한 요소였다. 암장은 1950년대 후반 이수병, 김금수, 박중기 등이 조직한 고등학생 서클로, 이 무렵 멤버의 대부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sup>46)</sup> 암장과 민민청이 접촉하게 된 것은 8월 27일 부산에서 개최한 암장의 사회과학 발표회를 민민청이 지원하면서였다.<sup>47)</sup> 이를 매개한 것은 암장의 멤버인 최주호의 형이자, 민민청 맹원인 최종근이었다. 이 발표회에서 이종률은 이수병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후 암장과 민민청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sup>48)</sup> 이에 암장이 민민청에 합류할 것을 결정하면서 서울맹부 조직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sup>49)</sup> 새로운 중앙

46) 이수병은 경희대 경제학과 학생으로 이듬해에 경희대 민족통일연맹 위원장으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금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으로 민민청 중앙맹부 간사장을 지냈다. 암장은 1974년 세칭 ‘인혁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으로 이수병, 김용원이 사형되고 유진근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다수가 관련되어 큰 곤욕을 치렀다.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2005, 『이수병 평전』, 민족문제연구소 :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편, 2005, 『인혁당 사건, 그 진실을 찾아서』, 166~168쪽. ‘인혁당재건위사건’은 2007년 재심 결과 고문과 조작에 의한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판원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47) 『국제신보』 1960년 8월 26일 : 김상찬, 앞의 구술(2002).

48) 김상찬, 앞의 구술(2000) : 배다지, 앞의 구술(2000) : 김금수 구술, 김선미 면접, 2007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2회 현장민주화운동사 정리사업 : 박중기 구술, 김선미 면접, 2005년 8월 22일. 최종근은 뒤에 경남공업전문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였다. 조현중, 앞의 구술(2002). 암장이 민민청에 가입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김선미, 박사학위논문, 147~148쪽 참고.

49) 정기영과 고성국은 암장이 민민청의 모태라고 서술하였으나, 이는 김지형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다. 정기영, 「4월혁명의 주도세력」,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①, 한길사, 1990, 139쪽 : 고성국, 「4월혁명의 이념」, 『한국사회변혁운동과 4월혁명』①, 152쪽 : 김지형, 앞의 논문(1996), 162쪽 참고.

맹부의 간사장을 맡은 것은 김금수였다.

경북도맹은 대구지역 청년계의 구심을 이루고 있던 서도원, 도예중, 송상진을 중심으로, 1961년 1월 초에 발기하여, 3월 4일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sup>50)</sup> 경북도맹은 서도원을 위원장, 도예중을 간사장, 송상진을 사무국장으로 하였다.<sup>51)</sup> 광주를 거점으로 하는 전남맹부는 결성되지 못하였다.

초기의 중앙맹부는 경남맹부로 재편되었다. 경남맹부는 배다지를 간사장으로 부산진지구, 동래지구, 영도지구, 마산지구 등 가장 넓은 조직 기반을 가진 맹부였다. 민민청 경남맹부는 경남학생위원회의 이형호와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를 통하여 학생운동에 지도성을 발휘하는 한편 혁신정계와 노인계 및 진보적 지식인 그룹과 긴밀히 연계하여 각종 민주화운동과 자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지역의 특기할만한 요소로서, 광범한 민주민족운동의 저변을 망라한 일종의 원로모임인 노인회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8·15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산에는 상당수의 진보적 인사들이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노인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된 결과가 바로 노인회의 결성이었다. 여기에는 정순중, 권손,<sup>52)</sup> 최천택,<sup>53)</sup> 유혁 등 일제하 반제투쟁과 8·15

50) 『영남일보』 1961년 3월 5일.

51) 徐道源은 근로인민당 출신으로, 대구매일신문 기자로 재직하고 청구대학에서 동양사를 강의했다. 都禮鍾은 남로당 출신으로, 뒤에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조직부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세칭 ‘인혁당사건’의 핵심 논객이다. 송상진은 대구 공산초등학교 교사로 1960년 교원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세 사람 모두 1974년 ‘인혁당재건위사건’으로 피검되어 사형 당했다. 『영남일보』 1961년 1월 28일 : 김민희, 『쓰여지지 않은 역사』, 대동, 1993, 도예중편 : 재경대구경북민주동문회 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편, 앞의 책, 167~169쪽.

52) 정순중은 경남 합천 출신의 항일운동가로, 8·15 후에는 남로당에서 활동했다. 권손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3·1운동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대구인민

직후 정당 사회단체 활동의 경력을 지닌 이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노인회가 조직된 것은 1960년 초였는데 처음에는 ‘부산노인구락부’라고 부르다가, 노인구락부라는 이름이 부적절하고 또 부산에만 한정하지 말자는 뜻에서 ‘경남노인회’로 개칭하게 되었다.<sup>54)</sup> 노인회의 존재는 부산지역 민주민족운동의 저변이 매우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남노인회는 가입 자격으로, 친일 경력이 없고 통일을 지향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하였으므로 다양한 편력을 지닌 인물들을 한 데 모으는 데 성공하였다. 참여 인원도 크게 늘어 한때 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경남노인회는 한때 《민생시보》라는 週報를 발행하기도 했다. 당시 부산일보 주필이었던 손풍산이 담당자였다.<sup>55)</sup> 이러한 경남노인회의 활동은 민주민족청년동맹 부산맹부의 실무적 지원과 혁신정계와의 교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4·19 민주항쟁 기간 동안 부산지역에서는 학생층, 혁신정계, 청년층, 노인계 등이 마치 그물망처럼 얽혀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은 민주화운동과 자주화투쟁의 국면에서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

항쟁 때 부산으로 이주했다. 정순종과 권손은 각각 이듬해 결성되는 민자통경남협의회 상임의장과 의장을 지냈다.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제3권, 149~160쪽.

53) 최천택은 부산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로, 1920년 의열단원 박제혁의 부산진경찰서 폭파를 지원하고, 1929년 신간회 부산지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945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경남도지부 기획부장을 지냈다. 김승, 「모든 외세 배격」 토박이 운동가 최천택, 부경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부산인물사』106~117쪽.

54) 『국제신보』 1960년 6월 2일

55) 경남노인회에 관한 것은 당시 경남노인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유혁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유혁, 앞의 구술.

## IV. 통일운동의 전개와 부산지역의 통일운동

### 1. 민족자주통일 중앙 및 지방협의회들의 결성

이승만 정권의 몰락에 이어 통일운동의 국면이 전개되자, 부산에서는 자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른 시기에 전개되었다. 그 움직임은 이승만이 퇴진하고 얼마지 않은 5월 초에, 청년층을 결집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이는 1950년대 후반 민족문화협회를 주도했던 이종률에 의해 그 문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학생 시위가 대규모 민중 저항으로 확대되면서 4월 19일 전국적인 반정부 투쟁이 정점에 이르자 이종률은 새로운 정치 국면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21일 서울에서 박진, 조운제 등 民族建揚會 인사들과 만나 '4월 목요일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국에 대해 논의했다.<sup>56)</sup> 여기서 이종률은 새로운 정치투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즉 향후 정치투쟁의 성격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통한 사회변혁의 수행이며, 이를 위한 기구로 대중단체와 전위당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한 전선체의 결성(이를 '黨勢'라고 한다)이라는 결의를 이끌어 냈던 것이다.

부산으로 돌아온 이종률은 5월 초 자택에서 문하들에게 새로운 정치투쟁을 뒷받침할 청년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가칭 민주주의민족운동청년협의회의 결성을 제기하였다. 이때 준비된 강령과 결의문도 함께 제안되었다. 이것이 민주민족청년동맹의

56) 민족건양회는 1946년 1월 5일 모스크바 삼상회의로 인한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전위당 건설의 준비모임으로, 이종률, 박진 등에 의해 발족되었다. 이외에 김창숙, 안경근, 문한영, 조운제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이외에 '4월 목요일회의'에서는 교수단 데모의 조직 등을 결의하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선미, 박사학위논문, 3장 2절 참고.

출발인 셈이고, 여기에 참석한 이들이 민주민족청년동맹 결성의 씨알이었다. 민주민족청년동맹이라는 명칭은 6월 12일 결성대회에서 확정되었다.<sup>57)</sup>

따라서 민주민족청년동맹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한 것은 이종률의 서민성자본민주주의민족혁명론(약칭 민족혁명론)이었다. 민족혁명론은 강력하고 부유한 자본제 민족사회의 혁명적 건설을 당면 과제로 설정한 사회변혁론으로,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세 배격과 외세의존적 구조의 척결로 규정하였다.<sup>58)</sup> 또한 분단 현실 또는 남북의 양 정권 역시 외세의존적 구조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은 동시에 사회변혁의 일환이며 또 다른 과정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라서 민주민족청년동맹은 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非蘇非美의 중립적 입장을 자기 것으로 하였으며, 이 점에서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가 표방한 자주적 중립에 의한 탈식민지주의에 대해 일찌감치 주목하였던 것이다.

7·29 총선이 끝난 뒤 이종률을 중심으로 민족건양회와 민주민족청년동맹은 전국적 규모의 통일운동 단체를 결성하는 일을 본

57) 『국제신보』 1960년 6월 13일.

58) 민족혁명론이란 일제 강점기의 항일투쟁과 8·15 직후 국가건설운동을 거치면서 사회주의혁명론을 우리 사회의 특수성에 적응시킨 결과 정립시킨 혁명론이다. 우리 사회의 토대를 후진성지역이라고 규정한 혁명론. 강력하고 부유한 자본제 민족사회를 혁명적으로 건설하여, 더욱 높은 단계의 사회로 지양시킨다는 혁명론으로, 당시 우리 사회의 혁명 단계는 그 앞 단계인 강력하고 부유한 자본제 민족사회를 혁명적으로 건설하는 단계라고 보았기 때문에 당면한 혁명은 민족혁명이 된다. 또한 강력하고 부유한 자본제적 민족사회를 건설하는 주체는 노동자층과 무산청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노력성 인민대중이고, 이를 지지하는 장애물은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이에 기생하는 매관세력 및 잔존하고 있는 봉건세력(民族三反)이라고 보았다.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은 노동자계급 주도 하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프롤레타리아혁명의 연속 혁명론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민족혁명론은 김선미, 박사학위논문, 2장 2절 참고.



격적으로 전개했다. 이를 위해 이종률은 개인 또는 단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정당·사회단체 및 개인을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의 단체를 구상했다. 이는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분오열된 진보 진영을 통합하고, 민주적이고 민족적인 역량을 총 결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sup>59)</sup>

이에 1960년 9월 초 민족건양회와 천도교 계열이 함께 준비위원회를 꾸린 이후 안경근, 장상호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시국대책협의회(뒤에 민족통일연맹으로 개칭)<sup>60)</sup>를 비롯하여 각지의 진보적이고 민족적인 세력이 속속 합류하면서, 1961년 2월 25일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이하 민자통중앙협의회)가 결성되었다.<sup>61)</sup>

결성대회를 개최할 무렵 민자통은 21개 정당 및 사회단체와 4만 명이 넘는 회원을 지닌, 순수 민간단체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대중조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민자통은 중앙협의회에 이어 서울시협의회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등 5개 도 협의회와 17개 군 협의회 등 지방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그 밖에 읍·면·동 협의회와 직장협의회, 재외동포 지부 결성을 준비하는 등 통일운동을 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이와 같은 민자통의 조직 및 확대는 그 자체로서 자주적

59) 이러한 독특한 조직을 처음 구상한 사람은 이종률이었다는 것은 박진목의 구술(원회복, 1995, 『조용수와 민족일보』, 새누리, 93쪽):김금수, 앞의 구술 참고.

60) 4·19 직후 경북지역의 항일 지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구국동지회를 모태로, 혁신정당과 진보적 단체를 포괄하였다. 11월 중순에 민족통일연맹으로 개칭하였다(「후백」④ 민족통일연, 『영남일보』1961년 1월 27일: 「후백」⑥ 구국동지회, 『영남일보』1961년 1월 29일).

61) 민자통중앙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사회당, 사회대중당, 혁신당 일부, 동학당 일부, 삼민당, 광복동지회 일부, 구국동지회, 민족건양회, 민주민족청년동맹, 통일민주청년동맹준비위, 천도교 일부, 천도교 부녀회, 유도회 일부, 사월학생혁신연맹, 피학살자유족회, 출판노조 일부, 교원노조 일부, 교수협회 일부, 사회문제연구회, 학사회, 사회과학연구회. 『민국일보』 1961년 2월 26일 석간.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과정이자 통일운동의 전개 과정이기도 했다.

이상의 과정에서 민주민족청년동맹 중앙맹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민족건양회와 민주민족청년동맹은 사회당, 통일민주청년동맹과 함께 민자통중양협의회의 운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2)</sup> 민자통중양협의회에서 이들은 사무국과 각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자리 잡고 실무와 대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총장 박진(민족건양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도예중(이하 민주민족청년동맹), 선전위원회 부위원장 하상연, 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달수 등이었다.<sup>63)</sup>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을 규합하는 것과 함께 통일운동 단체로서 민자통중양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 실현의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961년 1월 15일 민자통중양협의회 준비위원회는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강령으로 발표했다. 민족 자주적 입장이란 남과 북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평화통일이란 협상을 통한 통일이므로, 이는 다름 아닌 남북협상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에 대한 존재론적 인정이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을 무시하고 남한 단독으로 유엔의 지원 아래 북한을 흡수통합하려는 보수 정당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통일론이었다.

한편으로 남북협상통일론은 주변 강대국 간의 국제적 타협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려는 중립화통일론에 반대하였다. 물론 중립

62) 이 무렵 민자통중양협의회의와 민주민족청년동맹 중앙맹부(간사장 김금수)는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업무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금수, 앞의 구술.

63) 이외에 통일민주청년동맹의 김배영, 우동읍과 민주민족청년동맹의 박중기 등이 있다.

화통일론도 남북 협상을 포함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국제 협정에 두고 남북의 주도적 역할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열강 간의 국제협상에 의존한 중립화는 또 다른 외세 의존이라고 비판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남북협상론이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남북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모든 것을 일관하려는 고립적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고,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야 하며 국제적 요소는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남북협상통일론은 민자통중양협의회 주류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종률은 非蘇非美의 중립적 지향을 중시하는 독자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는 1961년 4월 14일 민족건양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민족통일방안대강'에 잘 나타나고 있다. '민족통일방안대강'에서 이종률은 "우리들의 대 국제 친교 방향은 미국을 선두로 한 '나토체제'도 아니며 소련을 선두로 한 '바르샤바체제'도 아닌, 亞阿(아시아-아프리카-인용자) 및 중남미의 생리로서의 '반동체제'의 방향이다. 그럼으로써 '네루' '나세르' 등의 주장인 '국제중립노선'을 우리들도 걷게 된다. 즉 동방측도 아니요, 서방측도 아닌 일명 '제3세력'으로서의 그 중립적인 방향을 우리들도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sup>64)</sup> 이는 일찍이 민주민족청년동맹의 강령에서 채택된 "반동체제 지역들의 청년운동과 제휴한 세계민주방향 청년운동에의 일의성 견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남북협상통일론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남북협상론은 통일을 사회변혁과 연결시켜 인식하였

64) 『민족일보』1961년 4월 14일 광고. '민족통일방안대강'이 이종률의 글이라는 것은 김보영, 앞의 논문, 김선미, 박사학위논문 참고.

는데, 이 때 사회변혁의 성격은 ‘반제, 반봉건, 반매관 민족혁명’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이종률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혁명론 학맥의 현실 인식이었다.

이외에도 민자통중양협의회는 대학가의 통일운동을 지원하였는데, 대학가의 학생운동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통일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11월 18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부산대 수산대 등 전국 18개 대학과 1개 고교의 민족통일연맹 결성과 이듬해인 1961년 5월 5일 민족통일연맹전국학생연맹(이하 민통전학련) 준비대회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자통중양협의회와 연계된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암장 출신의 민민청 맹원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sup>65)</sup> 특히 학생운동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종률과 도예종의 영향이 컸다.<sup>66)</sup> 이런 과정을 통해 민통련을 비롯한 학생운동 지도부와 민자통의 관계는 긴밀해졌다.<sup>67)</sup>

이에 학생 민족통일연맹은 사회단체 가운데 남북협상통일론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다. 5월 3일 서울대 민통련이 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하고, 이틀 후인 5월 5일 민통전학련이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바로 남북협상통일론을 학생운동 부문에서 구체화한 것이었다.<sup>68)</sup> 따라서 민통전학련의 남북학생회담 제의에 대해 민자통은 사회단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하고 지원 작업을 진행하였다.<sup>69)</sup> 이외에도

65) 김달수, 앞의 구술 : 김금수, 앞의 구술.

66) 1961년 4월 19일 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대 학생회가 주최한 기념식에서 발표된 ‘4·19 제2선언문’은 이종률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선언문에는 이종률의 民族三反 民族革命論이 잘 드러나 있다. 정신문화연구원 편,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선인, 2001, 42~46쪽 김정강의 구술 : 박중기, 앞의 구술 참고.

67) 통민청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의 학생운동을 지원했기 때문에 민민청과의 사이에 알력을 빚기도 했다. 김달수, 앞의 구술.

68) 서울대 민통련이 남북학생회담을 제기하는 과정에는 민민청 중앙맹부의 지원과 협력이 작용하였다. 김금수, 위의 구술.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2대악법반대투쟁 등 각종 활동에서 민통련은 민자통과 보조를 함께 하였다.<sup>69)</sup>

## 2. 부산의 통일운동과 민족자주통일경남협의회의 결성

부산 경남은 대구 경북과 더불어 혁신정당운동이 활발하고, 통일문제에 민감한 집단인 노인층이 조직화되었으며, 자주적 통일을 내세운 민주민족청년동맹 아래 청년층의 결집이 일찍부터 이루어진 지역이었다. 따라서 통일논의를 비롯한 각종 통일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가운데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도맹(이하 민민청 경남도맹)은 자주의식을 대중적으로 고취하고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의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1960년 8월 17일 광복 15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8·15의 밤'에서는 강연을 통해 지난 15년간의 한국 사회를 회고하면서 4·19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향후 자주화투쟁의 전개 과정을 전망하였다.<sup>71)</sup> 9월 30일에 의열단 창립자인 황상규의 추모제를 열었는데, 이는 황상규의 일생을 통해 반제국주의 자주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sup>72)</sup>

10월 30일 민민청 경남도맹은 '각 분야에서 보는 민족통일의 긴절성과 그 방안'이라는 부제가 달린 '민족통일대강연회'를 개

69) 이 행사의 경비는 『영남일보』 사장인 이순희가 지원하였는데, 이 지원금을 받아서 민족통일연맹에 전달한 것은 민주민족청년동맹의 간사장이었던 김금수였다. 김금수, 위의 구술.

70)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과 2대악법반대투쟁에 대해서는 김경대, 1990, 「4월혁명의 전개과정」, 사월혁명연구소, 앞의 책② : 손병선, 1990, 「2대악법반대운동」, 사월혁명연구소 앞의 책.

71) 『국제신보』 1960년 8월 17일. 이상은 민주민족청년동맹이 주관한 「8·15의 밤-광복15주년기념」, 1960년 8월 17일, 팸플릿 참고.

72) 『국제신보』 1960년 9월 29일.

최하였는데, 강연회에는 1천 명에 가까운 청중이 모여 통일운동을 대중 속으로 확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 시기는 민자통중 양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시기로서, 강연회는 대중적 통일운동단체의 형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sup>73)</sup>

특히 한반도 위에 쇠사슬로 그려진 휴전선의 중앙을 뚫고 남과 북이 손을 마주잡는 모습을 그린 강연회의 포스터는 매카시즘에 젖어있던 당시의 정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남북 주도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남북협상통일방안을 표현한 것으로, 민주민족청년동맹의 지향을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었다.<sup>74)</sup> 또한 강연회가 끝난 뒤 실시된 통일방안 설문조사는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일방안이라는 구체적 선택으로 연결시키는 데 효과를 발휘했다.<sup>75)</sup>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은 모두 843명이었는데, 이는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76)</sup>

연말에 민민청 경남도맹은 '민족문화인 망년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양심적 지식인들을 결속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론과 남북 교류 주장을 선전 확산시키는 계기로 활용했다.<sup>77)</sup> 이외에도 민민

73) 강연자는 서울대 정치학과의 周弘模, 고려대 경제학과 趙東弼, 부산대 경제학과 崔鍾植, 부산대 국문학과 金廷漢 교수였다. 주홍모는 천도교 계열로 민자통중양협의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했고, 민자통 통일방안심의위원회 위원이었다. 강연회의 기획과 섭외는 이종률이 담당하였다. 배다지, 앞의 구술(2002년).

74) 배다지, 앞의 구술(2002). 포스터 재현은 김선미 외, 2003, 『민주공원과 함께 하는 부산민주운동사』, 인쇄골 44쪽 참고.

75) 설문 조사 결과 남북협상통일방안이 325명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확보하였고, 중립화통일방안이 158명, 유엔 감시 하 총선거가 106명, 오스트리아식 중립화통일방안이 90명, 남북연립정부 수립이 64명의 지지를 받았다. 노중선, 『민족과 통일』 1(자료편), 사계절, 1985, 381쪽.

76) 『국제신보』 1960년 10월 30일.

청 경남도맹은 경남노인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고,<sup>78)</sup> 경남학생위원회와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의 활동에 지도성을 발휘하였다.<sup>79)</sup>

학생층의 통일운동은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후연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간 후연회는 학내외에서 각종 토론회와 초청강연회를 통해 시국문제에 대한 학생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서울을 필두로 전국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되기 시작하자 부산에서도 부산대와 수산대에서 민족통일연구회와 민족통일연맹을 결성하였고 동아대에서도 결성 준비를 진행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후연회의 활동은 통일운동으로 집중되었다.

9월 24~25일 고려대 학생회가 주최한 ‘민족통일에 관한 제 문제’ 토론회에는 부산대의 정동수가 참여하여 통일방안을 제안했는데,<sup>80)</sup> 후연회의 회원이자 민주민족청년동맹의 맹원이었던 정동수의 토론회 참여는 후연회 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11월 5일 부산대 학생들은 도심 한 가운데서, ‘중립적인 무혈 통일’과 이를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장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sup>81)</sup>

77) 『국제신보』 1960년 12월 31일.

78) 구성원이 모두 노년층인 관계로, 경남노인회가 주관하는 행사의 실무는 민민청 경남도맹이 도맡아 처리했다. 민민청 부산맹부 간사장으로 이 일을 주관한 배다지의 구술. 배다지, 앞의 구술(2002).

79) 경남학생위원회와 민민청 경남도맹을 연결한 것은 이형호였다. 당시 경찰이 교생의 시위 계획을 배다지에게 탐문할 정도로 이들은 긴밀하게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의 중심인물 가운데 손병선, 손의현 등 다수는 부산대 정치학과 재학생이었고, 정동수와 같이 후연회와 민주민족청년동맹에 동시 가입한 이도 있었다.

80) 정동수는 민주민족청년동맹의 맹원이기도 하다. 정동수는 외국군의 철수를 전제로, 남북이 주체가 된 전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엔이 파견한 중립국 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는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노중선, 1985, 『민족과 통일』 I, 사계절, 387쪽.

이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통일을 주장한 것이다. 후연회의 주도로 감행된 이날의 시위를 통해 후연회는 10월 30일 민민청 경남도맹이 주최한 '민족통일대강연회'를 통해 형성된 분위기를 확산시켜,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을 고조시키려 한 것이었다.<sup>82)</sup> 통일운동이 전국적으로 한껏 고조된 이듬해 2월 11일 후연회는 정당, 언론인, 대학 교수를 동원한 '조국 통일에 관한 시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sup>83)</sup> 본격적으로 부산 지역의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는 민자통중양협의회의 결성 대회를 14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기반으로 부산에서도 민자통경남협의회 결성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사회당을 중심으로 사회대중당, 혁신당 등 혁신정당의 경남도당이 주도성을 발휘하였다. 여기에 경남노인회를 비롯한 노인계의 전면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전술한 것처럼 당시 노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통일문제였으며, 특히 경남노인회에는 항일 투쟁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층은 통일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가두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지만<sup>84)</sup> 노인층의 특성상 직접적인 행동보다 통일운동에 대한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중심을 두었다. 따라서 경남노인회는 민자통중양협의회의 결성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민자통경남협의회의 결성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sup>85)</sup>

81) 『영남일보』 1960년 11월 6일.

82) 최석환, 앞의 구술.

83) 남성여고에서 개최된 시민공개토론회에는 5백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고, 각 정당, 언론인, 및 대학 교수로 된 연사들은 각기 다른 통일방안을 피력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을 복돋우었다. 『국제신보』 1961년 2월 12일.

84) 『국제신보』 1960년 8월 17일.

85) 민자통 경남협의회의 주도세력은 사회당 경남지부였으며, 경남노인회는 주요



민자통경남협의회의 결성을 위한 과정은 9월 30일 민민청 경남도맹이 주최한 황상규 추모제에서 시작되었다. 추모제에는 각계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종률은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통일”, “평화통일 서신왕래 물물교환” 등이 기재된 선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민족자주통일중앙 및 경남협의회의 결성 과정에 참여할 것을 고무하였던 것이다.<sup>86)</sup>

이후 후연회, 각 대학의 학생회, 경남학생위원회 등 학생층을 비롯하여 민민청 경남도맹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통일운동의 대중적 기반이 확대하는 과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다.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이윽고 1961년 1월 15일 민자통경남협의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8일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던 것이다. 상임의장에는 정순중, 의장에는 권손, 전호일, 문희중, 김수현, 김용겸 등이, 수석부의장에 배종건, 사무국장에 이능희, 총무부장에 유혁, 조직책에 이영석 등이 선임되었다.<sup>87)</sup>

혁신정당을 중심으로 노인층, 학생층, 청년조직이 밀도 높게 연계하여 진행된 민자통경남협의회의 조직은 그 자체로서 부산지역의 민주 자주 세력의 결집 과정이었다. 이러한 결집력을 바탕으로 부산에서는 진보 진영이 연대하여 한미경협반대투쟁, 2대 악법반대투쟁 등을 힘차게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88)</sup>

---

지지 기반 가운데 하나였다. 김선미, 앞의 논문(2000) 참고.

86)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앞의 책(4집), 184쪽.

87) 김지형, 앞의 논문(1996), 151쪽.

88) 『국제신보』 1961년 2월 19일, 3월 23일, 24일, 25일, 26일, 5월 12일 :『영남일보』 1961년 3월 23일, 26일, 5월 13일.

## V. 맺 음 말

이 연구는 4·19 민주항쟁 기간에 부산이 통일운동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지역적 기반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1950년대 후반 부산 지역의 진보 진영의 존재와 활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말기 부산에는 민주민족세력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부산은 4·19 민주항쟁 초기에 청년층의 조직화에 성공함으로써, 이후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에 강력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남과 경북의 진보세력이 함께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부산의 민주민족세력은 민자통중양협의회의 창립을 추동하고 경남협의회를 결성하는 한편 남북협상통일론으로 통일논의를 주도하고 학생 민족통일연맹 등 통일운동 세력과 연계하여 통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같은 시기에 전개된 한미경제협정반대운동, 2대악법반대투쟁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4·19 민주항쟁 시기 진보 진영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던 혁신정계에 대한 서술이 미약하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는 이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경권, 1985, 「제2공화국 혁신세력 연구-민족지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광식, 1988, 「4·19시기 혁신세력의 정치활동과 그 한계」, 『역사비평』봄
- 김보영, 2000, 「4월민중항쟁 시기의 남북협상론」, 『4·19와 남북관계』, 민연
- 김선미, 2000, 「부산의 4월민주항쟁과 주도세력, 최장집 외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한가람
- \_\_\_\_\_, 2007, 「4·19를 전후한 시기 통일운동의 흐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제2회 현장민주화운동사정리사업
- \_\_\_\_\_, 2008, 「이종률의 민족운동과 정치사상」,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김지형, 1996, 4·19 직후 민족지주통일협의회 조직화 과정, 『역사와 현실』21
- \_\_\_\_\_, 2000, 4월민중항쟁 직후 민족지주통일협의회회의의 노선과 활동, 『4·19와 남북관계』, 민연
- 노중선, 1985, 『민족과 통일』 I, 사계절
- \_\_\_\_\_, 1989, 『4·19와 통일논의』, 사계절
- 박찬호, 1992,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현대사』2, 풀빛
- 박철규, 2000, 4월민중항쟁의 전개과정-부산, 최장집 외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한가람
- 서중석, 1991, 4월혁명운동기의 반미·통일운동과 민족해방론, 『역사비평』가을
- 유재일, 1988, 4·19시기 혁신정당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 정창현, 1992, 4월민중항쟁 직후 혁신정당운동과 민족자주통일중앙 협의회, 『한국현대사』2, 풀빛
- 홍석률, 2001,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 1953~1961』, 서울 대학교 출판부.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일
2009. 10. 31	2009. 11. 26 ~ 12. 5	2009. 12. 15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4·19 민주항쟁 시기 부산의 민주민족세력이 가진 지역적 토대를 구명하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4·19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前史를 형성하고 있는 1950년대 후반 부산의 진보 진영의 존재 양태와 활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 말기의 부산에는 민족문화협회, 성민학회와 창신학회 등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부산의 민주민족세력이 4·19 민주항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에서는 4·19 민주항쟁의 초기에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남학생위원회(경남학생총연합회),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로 청년층과 학생층의 선진 분자들이 조직화되었다. 이로써, 혁신정당, 경남노인회 등과 함께 민주항쟁의 전개에 필요한 강력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후 민주민족청년동맹은 서울과 경북 등지로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종률에 의해 주도된 이 과정은 동시에 전국적인 통일운동 단체인 민자통중양협의회를 결성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한 민주민족청년동맹의 경북맹부가 결성되면서 부산 경남의 진보 진영은 대구 경북의 진보 진영과 연계하게 되었다. 이에 이종률의 민족건양회와 민주민족청년동맹은 민자통중양협의회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남북협상통일론을 주도하였다. 한편으로 부산에서 혁신정당과 민주민족청년동맹은 경남학생위원회와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를 통해 학생층에 지도성을 발휘하고, 경남노인회와 연대하여 민자통경남협의회를 결성함으로써 지역의 통일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지역사를 복원함으로써 4·19 민주항쟁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전체상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 시기 진보 진영의 최대 거점이었던 경상남북도의 민주민족역량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 민족문화협회, 혁신정당, 민주민족청년동맹, 이종률, 경남학생위원회, 경남학생총연합회, 후진성극복학생연구회, 경남노인회, 민족자주통일중양협의회, 민족자주통일경남협의회

## 【Abstract】

---



---

### Reunification Movement in Busan of the Age of the April, 19

Kim, Sun-mi / Pusa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istory

---



---

This paper aims at studying the regional base which the democratic national group of Busan had, during the age of the April, 19. For this, above all I have analyzed an aspect of the being and action of progressive group of Busan in the later

1950s. The time was the formative period of the direct history of the preceding age of the April, 19 Democratic Uprising in 1960. At last I has confirmed that various organizations, that is, the National Culture Association(民族文化協會), the Sung-Min Institute (성민학회), and the Chang-Shin Institute(창신회) and others had operations at the last years of Lee Sung-Man in Busan. In conclusion, I have found that the democratic and national group of Busan accumulated a leading power in the April, 19 Democratic Uprising in 1960.

At the beginning of the Uprising in 1960, the Democratic and National Youth Alliance, the Kyungnam Student Committee, and the Backwardness Overcome Student Research Society was organized with superior young men and students, in Busan based on it. With this, the powerful base was constituted which unfolding of democratic uprising with the reformist parties and the Kyungnam Old Man Association. After this, the Democratic and National Youth Alliance extended it's organization to Seoul and Kyungbuk etc.. This course leading by Lee Jong-Ryul was it of organizing the National Independent Reunification Central Conference that was nationwide reunification movement organization, at the same time.

And when Kyungbuk branch of the Democratic and National Youth Alliance was organized, the progressive group of Busan and Kyungnam was connected with them of Daegu and Kyungbuk. As a result *Minjokgeonyanghoe* of Lee Jong-Ryul and the Democratic and National Youth Alliance constituted main stream of the National Independent Reunification Central Conference and led the theory of the South-North negotiation reunification.

At the same time, the reformist parties and the Democratic and National Youth Alliance displayed leadership to students through the Kyungnam Student Committee and the Backwardness Overcome Student Research Society in Busan. And they led reunification movement of region by composing the National Independent Reunification Kyungnam Conference connected with the Kyungnam Old Man Association.

Through this analysis I have constructed the whole image of the April, 19 Democratic Uprising in 1960 that is inclusive and various, through restore region history. And I expect it contribute to understand democratic national ability of Kyungsangnambukdo which is maximal position of progressive group in South Korea at that time.

**Key words** : the National Culture Association, reformist party the Democratic and National Youth Alliance, Lee Jong-Ryul, the Kyungnam Student Committee, the Kyungnam Students Federation, the Backwardness Overcome Student Research Society, the Kyungnam Old Man Association, the National Independent Reunification Central Conference, the National Independent Reunification Kyungnam Conference